

옛 그림 속 茶 이야기

14 서학도와 청자상감운학문완

왕실 다방 · 사찰 선차 유행해 다점 성행

중국 북송의 수도 변경에서 황실 건물의 완공을 기념하기 위해 대항연이 열리던 정월 15일 밤(1112년), 갑자기 학들이 무리를 지어 건물 위로 날아와서 오랫동안 머물며 떠나지 않았다. 이를 지켜본 휘종 황제는 이 사건을 국가적인 부흥을 알리는 상서로운 징조로 여겼던 것 같다. 그날의 일화를 담은 '서학도(瑞鶴圖·그림 위)'는 휘종이 직접 그린 어필화(御筆畵)로 중국에서 학을 중심 주제로 한 이른 시기의 작품이다.

동양에서 학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특별하다. 학은 새들의 우두머리로 일품조로도 일컬어진다. <상학경>에는 60년이 지나면 그 색이 눈처럼 희게 돼 진흙 속에도 들어가지도 더럽혀지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거북이와 함께 장수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양생요>에서는 학의 나이는 천백을 헤아린다고도 한다. 이처럼 동양에서 학은 길상적 의미와 함께 청정함과 고고함을 상징한다. 당시 푸른 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았던 학들의 모습이 휘종에게는 인상적이었던 것일까. 그는 이후 '서학도'에 표현된 하늘빛과 같은 '비운 후의 하늘(雨過青天)' 색으로 청자를 제작하도록 명했다. 중국 북송대 휘종연간에는 이렇듯 황제의 미감에 맞는 회화와 도자 예술이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하게 됐다. 하지만 정작 이 모든 것이 한자리에 어우러져 탁월한 예술적 경지에 도달한 것은 바로 고려시대의 비색(秘色) 청자를 통해서다. 중국 청자의 경우 두터운 유약을 통해 하늘빛을 재현하고자 했다면, 우리나라의 청자는 맑고 투명한 유약 밑으로 삼강(象嵌)이라는 정직한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화려하면서도 무겁지 않은 느낌의 하늘빛을 표현하는데 성공했다. '서학도'의 푸른 하늘 위를 날던 학들이 고려의 청자 다방 위를 날고 있다(그림 아래). 차 거품을 내기 위해 입지름이 넓은 고려 말차용 다완은 사각형의 몸체로 깊은 화형록색을 띠며 은은한 광택을 내뿜고 있다. 문양은 다완의 내부에만 배꼽처럼 있는데 백상감을 위주로 시문하고 학의 부리와 다리, 목은 흑상감했다. 향기가 피어오르듯 구름이 일고 구연을 따라 말차의 흰 포말이 일어날 때 즈음 백학은 날개를 펼쳐고 다완을 빙그르르 돌며 춤을 춘다. 학의 머리는 몸에 비해 크고, 날개는 머리에 비해 짧아 보인다. 하지만 '서학도'에 표현된 긴 날개에 경쾌한 모습의 학보다 고려청자에 표현된 학의 모습에 더욱 정감이 가는 것은 왜일까. 정형화되고 이상화된 예술작품은 인간을 그 앞에서 경탄하고 숨 막히게 만들지만, 천진한 표현은 그 자체로 예술적 감흥과 함께 무한한 애착을 가지게 한다. 피어오르는 구름을 보고 마치 흥내라도 내듯 흥겨운 날개 춤을 추는 학의 모습에서 우리는 고려시대의 화려

한 차 문화와 함께 이들의 수준 높은 미감을 읽어낼 수 있는 것이다. 문화가 보편화돼 문화적 질정기를 이뤘던 고려시대, 왕실에서는 차를 연등회나 팔관회 등의 국가 행사에 의례용으로 사용했을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중요시해 이를 전담하는 기관인 다방(茶房)을 뒀

다. 사찰에서는 차를 통해 참선에 이르는 다도정신이 확산됐고 문인과 선승사이에서는 탈속의 정신세계를 지향하는 이들의 매개역할을 했다. 이후 왕실과 사찰에서 유행한 차는 점차 일반화와 곳곳에 다점(茶店)이 성행했다. 이렇듯 차 마시는 풍습이 일반화되자 다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다기는 조형적 미감 뿐 아니라 차 맛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인식되면서 점차 중요시됐던 것이다. 초기 고려청자의 가마터 조사에 의하면 다기 류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정도이니 청자의 발달이 차 문화와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후 고려청자는 발전을 거듭해 12세기 중반 경에는 본 작품과 같은 완숙의 경지에 이르게 된 것이다. 차의 삼미(三味: 色, 香, 味)를 드러내며 아름다운 비색으로 빛나던 이 다완은 현재 일본의 동양도자미술관에 소장돼 있다.



휘종, '서학도' 북송(1112), 견본채색, 51x138.2cm, 요녕성박물관 소장 (위), '청자상감운학문완' 높이:6.0cm 입지름:17.0cm, 오사키동양도자미술관 소장(아래).

이랑 lang312@hanmail.net 동아사이차문화연구소 연구원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건이야기

1 화엄사 각황전(覺皇殿)



지리산 서쪽 화엄사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다. 젖을 수 있는 건 모두 젖고 있었고, 한편에선 빛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빛나고 있었다. 가장 큰 불전 중의 하나인 각황전은 다가가면 빛을 동안에도 그 모습이 보였다 안 보였다 했다. 지금의 각황전 터에는 장육전이 있었다. 장육전은 전란으로 사라졌고, 많은 이야기 끝에 지금의 각황전이 세워졌다.

모든 고찰들이 그렇듯이 보이는 것들은 사라진 것들 위에 서있었고, 사라진 것들은 남아있는 것들의 기억 속에 있었다. 그 옛날, 장육전이 사라지고 스님은 기도 끝에 꿈을 꾸다. 다음 날 사시마지 때 대중을 모아놓고 물 묻은 손에 밀가루를 찍어보라고 한다. 마지막 스님 한 분이 물 묻은 손에 밀가루가 묻지 않았다고 한다.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됐다고 한다.

도량은 비 끝에 묻어온 운해에 또 한 번 젖어가고, 사시마지를 든 스님은 그 옛날의 범당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옛 판화의 세계

은봉 스님이 전쟁을 멈추다 은봉해진(隱峯解棘)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당나라 때 은봉 스님이 오나라 원제가 왕명을 어기고 관군과 전쟁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전쟁을 그만 두게 하는 모습을 판각한 작품이다. 석은봉(釋隱峯) 스님은 당나라 때 스님으로 건주 소부현 사람이다. 성은 등(鄧壽), 등은봉 이라고도 한다. 처음에 마초(馬祖)의 문중에 있다가 깨닫지 못하고 석두 화상에게 두 번 왕래한 뒤, 다시 마초의 문중에 와서 마초의 말 한마디에 깨달았다고 한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원화(元和) 연간에 오봉산으로 유람하게 됐는데 길이 회서 지방으로 나가게 돼 있었다. 때마침 오나라 원제가 군병으로 길을 가로막고 왕명을 어기고 항거해 관병과 적군이 서로 만나 전쟁을 하면서 승부가 아직 결정 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 때 은봉 스님이 말했다. '내가 가서 그들의 살육하는 싸움을 해소하겠다.' 그리고 곧 석장을 날려 공중에 몸을 날리면서 천천히 움직여 석장을 따라가 두 군진 사이를 지나갔다. 이에 전사들은 각기 스님이 날아 하늘에 치솟는 것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뽑았던 창과 칼을 칼집에 넣고 전쟁을 그만뒀다. 이윽고 오대산에 들어가

두루 신령한 자취를 참관하다가 홀연히 금강굴 앞에서 거꾸로 물구나무를 서서 죽었는데 그 공음이 나무를 심어 놓은 것과 같았다. 당시 대중들이 논의하기를 신령한 굴 앞이니 마땅히 다른 곳으로 옮겨 다비해야 한다고 했는데, 우뚝 산과 같이 높이 고정돼 모두 힘을 합쳐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마침 비구니스님이 된 은봉 스님의 누이 동생이 오대산에 들어와서 성난 눈으로 탄식하며 말했다. '노릇께서는 예전에도 법률을 따르지 않더니 죽어서도 또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십니까? 이미 대중들은 누이인 내가 비록 골육을 함께한 친족이지만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없음을 알고 있으니 영원한 법도를 따르기를 청합니다.' 하고 손으로 가법계 미니 분연히 시신이 넘어졌다. 이에 마침내 다비해 사리를 거둬 탑 안에 넣었다.' 은봉 스님이 신비한 능력의 힘을 보여 전쟁을 거두고 평화로 거듭나게 하셨듯이, 인간의 욕망이란 이해관계로 인해 형성되어 있는 우리 중생계에 옛 조사들이 보여준 깨달음의 자유자재한 모습은 어두운 중생의 마음 한구석을 밝게 해주는 영원한 희망의 빛이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관화박물관 관장)

시가 있는 도량

발자국 언어

재두루미 한 마리가 등화천에 내려와 물결 위에 발자국을 찍으며 걷는다. 날개를 펼쳐보려는 접고, 다시 펼쳐보려다 접으며 천천히 천천히 얇은 물위를 걷는다. 물오리떼가 있고 눈조리개를 조였다 풀었다 하는 내가 있지만 재두루미에겐 아무도 없는 것. 재두루미가 저렇게 혼자 발자국을 남기며 걷는다는 건 물위의 발자국이 누군가에 닿기를 기다리는 행위. 천년의 풍경을 세긴 물결의 파문을 기억하는 발자국은 언젠가 제 족속에라도 읽혀 혼자 재두루미를 제 무리에게로 날아오르게 한다면 지켜보는, 스치고 가는 무수한 이들이 있으나 나에겐 아무도 없는 지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찍고 있는 나의 발자국도 언젠가는 그 누군가에게 닿아 파문을 일으킬 문장. 내가 나를 증명하게 될 말

-김영령, <다층> 가을호



고관화박물관 소장 <석씨원류(釋氏源流)> 중 은봉해진(隱峯解棘) 편. 불암사 판 1673년 간행, 반곽(半郭) 27.2 x 18.0cm

비누독을 연화시키는 삼베웨이셀타올



삼베웨이셀타올
각 6,000원 → 5,400원 (10%DC)

삼베 타월의 특징

선조들의 지혜와 맛이 깃든 삼베 타월은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하며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헨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으로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맑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러닝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삼베웨이셀타올 세안법

- ① 삼베웨이셀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 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②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③ 삼베사워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 ④ 3~4일이 경과 하면 맑아진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 ⑤ 피지, 각질연화효과가 있어 혈색이 좋아짐에 확신이 잘 받습니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의한 표시품 특성

- 품명 - 예고은 삼베 사워 타월
- 재질 - 헨프사, 죽사
- 용도 - 세안 및 전신목욕, 때밀이, 냉수마찰, 스포츠타월, 등산할 때, 한자목욕시사용, 건포마사지용
- 규격 - 세안용 (30cm x 28cm)
- 제조원 - 초록실업원 (한국산)

삼베수세미 특징

선조들의 지혜와 맛이 깃든 삼베수세미는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하며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헨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으로 식기세척시 세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부드러운 느낌과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으며 사용하는 분들은 소박하고 겸손한 아름다운 마음을 지니게 됩니다.

삼베수세미의 효과

- 다이어트 피해와 수질오염(명숙에서 저연소질)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 사용 후에는 세탁 후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건조합니다
- 품명 - 예고은 삼베 수세미
- 재질 - 헨프사, 죽사
- 용도 - 식기세척, 과일세척, 목실청소 등
- 규격 - 30cm x 30cm(S) / 30cmx50cm(대)

위생·항균·항독 삼베수세미



삼베수세미
각 4,000원 → 3,600원 (10%DC)

건포마사지용 삼베사워타올



삼베사워타올
각 15,000원 → 13,500원 (10%DC)

- 품명 - 예고은 삼베 사워 타올
- 재질 - 헨프사, 죽사
- 용도 - 세안 및 전신목욕, 때밀이, 냉수마찰, 스포츠타월, 등산할 때, 한자목욕시사용, 건포마사지용
- 규격 - 전신용 (30cm x 130cm)

건포, 습포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등골계 피부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위생적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마사지방

- 여름에는 냉수마찰, 겨울에는 건조, 습포 마사지를 권합니다.
- 냉한 체질은 건조, 습포마찰이 좋고 많이 많은 사람은 냉수마찰이 좋습니다. 단, 많이 많은 사람은 건조마사지를 무리하게 하지 말고,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은 냉수마찰을 피합니다.
- 예민한 피부는 문지르는 것에 자극을 받아 피부질환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 합니다.
- 상처나 피부질환시 문지르지 않아야합니다.



건포 마사지의 효과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지지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겨울이질 의심은 배려세요. 비누독이 안 쌓이니 피부가 좋아집니다.
- 죽은 세포나 피지가 매일 제거가 되어 때가 안 집니다.
- 몸의 때는 비누 때로 인해 생깁니다. 비누 때가 얼어지므로 때가 안 집니다.
- 한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현불삼 특별 할인 세트 30,000원 (세트 구매시 배송비 무료 + 추가 할인)

구성 : 삼베웨이셀타올 + 삼베수세미 + 삼베사워타올 + 삼베항균비누 3개



현대불교 현불삼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www.hyunbulshop.com

들잔치, 환갑, 칠순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